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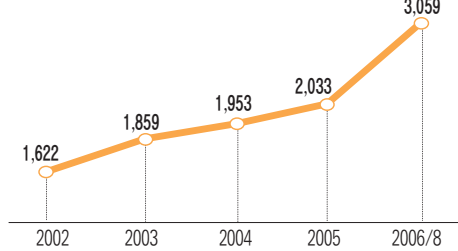
한국 시집 온 외국여성 '가난'에 운다

전남 농촌총각 40% 국제결혼...올들어 31% 급증
혼혈자녀·가정폭력 등 고통...행·재정 지원 절실

국제결혼을 통해 전남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낳은 문화에 적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 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2004년 기준으로 전국 총 결혼 건수 31만944 건중 국제결혼은 3만5천447건으로 11.4%를 차지하며, 농촌의 경우 국제결혼이 27%나 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 인과의 결혼을 통해 전남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은 3천59명에 이른다. 지난 1월 말 현재 결혼 이민자 숫자가 2천342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7개월 새 무려 717명(30.6%)이 증가한 셈이다.
전남지역 결혼 이민자는 지난 2002년 1천622명에서 2003년 1천859명, 2004년 1천953명,

■전남지역 결혼 이민자 추이



2005년 2천3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남지역 농촌 총각 1천88명 중 39.3%인 428명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에 따라 코시안(Kosian-코리안과 아시아인의 합성어)으로 불리는 혼혈자녀도 지난 2005

년 1월 말 현재 2천442 명에서 지난 2월 말 현재 3천64명으로, 1년 새 622명(25.5%)이 늘었다.

그러나 이들 결혼 이민자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데다, 사회복지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혼혈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가 최근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여성 1천613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월평균소득은 132만2천 원에 그쳤다. 스스로 한 달 최저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44만 원보다 11만8천 원이 부족한 액수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가을빛깔 가로수 막바지 단풍으로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이 붉은 터널로 변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거닐며 늦가을을 만끽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주택대출 금리↑ 한도↓

시중銀, 정부 부동산대책 맞춰 이번주 적용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즈음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주택대출 금리는 더 높아지고 한도는 더 줄어드는 형태로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같은 변화가 일선 은행 영업점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주택대출 금리를 인상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이미 직접장전결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주택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리은행만 지난주 9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을 뿐 여타 은행들은 이번 주 중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경우 빨라도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 주 초쯤 금리를 인상분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장에게 부여된 금리 전결권을 0.20%포인트 줄이는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역시 이번 주부터 본점 전결 금리를 0.5%포인트에서 0.2%

포인트로 낮출 것이지만 적용일자 내 놓지 않았다.

이밖에 여타 시중은행들은 아직 금리 인상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이후 비슷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리 할인 폭을 줄여 최저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대출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기존 주택대출자에게는 금리 변화가 없다.
금리 인상과 별도로 주택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대책에는 기존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농가정보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

남부대학교
세명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양용은 EPGA 우승
▶ 22면

光州日報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55기 수습기자 모집

권위와 전통의 광주일보가 제 55기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명실상부한 호남 지역 대표신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광주일보는 명석한 판단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갖춘 패기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지와 보람의 광주일보와 함께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1. 모집대상

모집부문	인원	자격및 대상
취재 수습기자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1974년 이후 출생자 가능)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해외여행 결정사유 없는 자 군필자(남자)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www.daeju.com
- ▷명함판 사진 1매(입사지원서 부착)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성적 포함)
- ▷자격 및 면허증, 외국어 성적증명 사본(소지자에 한함)

3. 전형 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일 정
▶입사지원서 배부 및 접수	2006년 11월 6일~11월 15일 18:00시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06년 11월 16일
▶필기시험 (국어/상식/영어/논문)	2006년 11월 19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6년 11월 20일
▶면접	2006년 11월 22일
▶최종합격자 발표	2006년 11월 27일

- ▷서류접수처: (501-711)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9층 대우 그룹기획실 인사관리팀(우편접수 및 직접 방문)
- ▷필기시험 장소: 미정(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4.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본보 지면 및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靑, 여수엑스포 직접 챙긴다

15일 범정부 점검회의

정부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본격적인 개회권 확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 및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성공을 위한 점검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4년 말 여수엑스포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첫 행사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지원 의지를 밝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회의에서는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유치의지 표명과 차질없는 준비를 다짐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unipark@

ALL LASH MASCARA

LANEIGE

LANEIGE

안경선